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경제안보 시대, 대응방향과 과제
[발제자]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 시] 2022년 9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최근 다양한 이슈로 인해 경제안보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경제안보가 등장한 주요 배경은 기술패권경쟁이다. 미중갈등은 지정학적인 갈등도 있으나 핵심은 기술패권경쟁이다. 기술과 지정학이 맞물려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더해져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식량 수급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산업공급망의 교란과 데이터 보안, 사이버 공격가능성의 증대, 주요 운송로 안전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

해의 강도도 심화되면서 에너지산업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경제안보는 단독부처가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 영역간의 역할 분담으로 상시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 민간 파트너십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립만이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방어뿐 만 아니라 능동적인 경제안보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응징력 및 보복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여 단독 또는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 경제와 안보의 접목

- ◆ 최근 다양한 이슈로 인해 경제안보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경제안보가 등장한 주요 배경은 기술패권경쟁이다. 미중갈등은 지정학적인 갈등도 있으나 핵심은 기술패권경쟁이다. 기술과 지정학이 맞물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더해져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식량 수급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산업공급망의 교란과 데이터 보안, 사이버 공격가능성의 증대, 주요 운송로 안전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강도도 심화되면서 에너지산업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경제안보의 개념

- ◆ 안보는 외부에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해내는 기본적인 역량을 말한다. 위협은 가시적인 위협과 비가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적,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경제 안보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협력적이기 보다 방어적인 미국이 될 것이다.
- ◆ 군사안보는 대상이 명확하다. 상대방의 전력 평가가 용이하고 가변성이 낮다. 그러나 경제안보는 대상이 불명확하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변성이 높다. 군사안보는 정부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경제안보는 민간의 참여가 높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경제안보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모호하다. 이처럼 경제안보는 불명확하고 수시로 변하는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 경제안보의 대응

- ◆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방어 전략과 공격전략이다. 방어 전략은 공급망, 인프라, 데이터를 굳건히 하는 것이고 공격 전략은 첨단기술 강화, 자원 자산 취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안보의 대응방식 단계로는 ‘모니터링, 예방, 협상, 적응 및 자립, 규범 창출 및 대응, 보복’이 있다. 모니터링과 예방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는 대화로 협상을 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협상단이 기술이나 규제 측면에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응하고 자립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는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규범을 빠르게 배워서 적응하려했으나 이제는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규범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점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측면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상대방이 협력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 즉각적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양자적이거나 다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

◆ 세계적인 경제안보 현황

- ◆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EU에 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한국이 경제안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다. 개별분야로 들어가면 반도체 시장, 배터리 부문의 세계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희토류 공급도 큰 이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희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렵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을 찾고 있으며 통신분야에서도 화웨이 5G를 규제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 ◆ 최근 EU가 국경간 탄소조정(CBAM)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EU가 수출입하는 물건에 대해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 집약 산업 위주인 한·중·일은 물론 러시아까지 EU와 교역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고려사항

- ◆ 경제안보는 단독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 영역간의 역할 분담으로 상시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 민관 파트너십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립만이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방어뿐 만아니라 능동적인 경제안보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응징력 및 보복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여 단독 또는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 ◆ 경제안보는 적과 아군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갈등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파트너는 없지만 그렇다고 파트너가 없이 움직이는 것은 더 위험하다.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준동맹, 전략적 파트너와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가시적 전략과 소리없는 외교의 병행을 통해 개방성을 확보하여 모든 상황

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더라도 시나리오별 작전계획은 필요하다. 한국이 가지는 첨단산업 역량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안보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